

PART 2

마약류별 일반현황

1절 아편, 헤로인

2절 코카인

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 향정물질[N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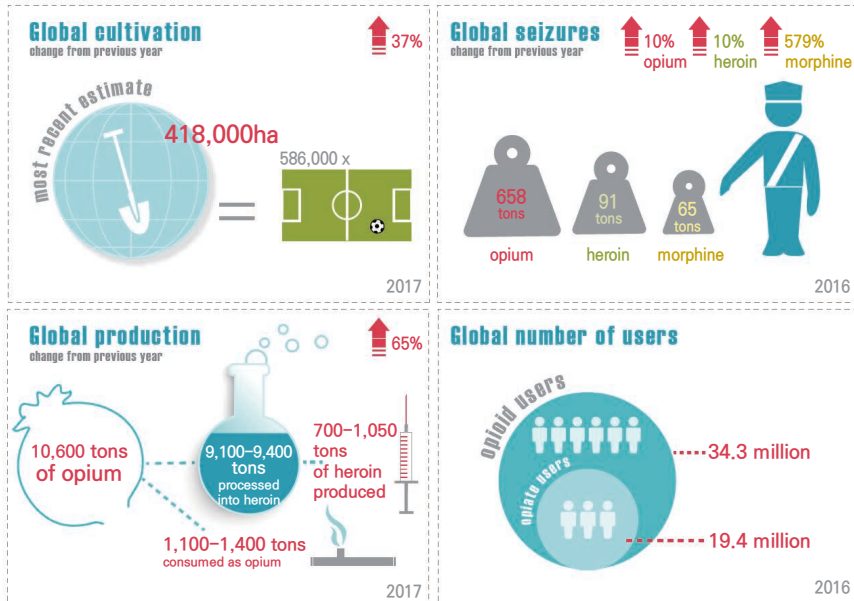
4절 대 마

제1절 아편, 헤로인¹⁾

1. 전 세계 통계 개요

- 양귀비는 50여 개국에서 불법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2017년 전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18,000ha이고, 이는 전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재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17년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은 약 10,500톤으로 전년 대비 65% 급증하여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을 측정한 이래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2017년 아편 생산량은 9,000톤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음
 - ※ 양귀비 재배면적 및 아편 생산량 측정은 라오스, 멕시코, 콜롬비아는 2015년까지, 파키스탄은 2016년까지 측정되었으나 2017년에는 측정되지 않음

[그림 2-1] 아편 및 헤로인 관련 통계



Note: All data refer to 2016 except cultivation and production, which refer to 2017 (preliminary).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1)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vol.3, "ANAYSIS OF DRUG MARKET"

[표 2-1]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

(단위: 헥타르)

국가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남아시아											
황금의 초승달지대	아프가니스탄		123,000	123,000	131,000	154,000	209,000	224,000	183,000	201,000	328,000
	파키스탄		1,779	1,721	362	382	493	217	372	130	
소계			124,779	124,721	131,362	154,382	209,493	224,217	183,372	201,130	328,000
동남아시아											
황금의 삼각지대	라오스		1,900	3,000	4,100	6,800	3,900	6,200	5,700		
	미얀마		31,700	38,100	43,600	51,000	57,800	57,600	55,500		41,000
	태국		211	289	289	209	265			399	
소계			33,811	41,389	47,989	58,009	61,965	63,800	61,200	399	41,000
중남미											
콜롬비아			356	341	338	313	298	387	595	462	
멕시코			19,500	14,000	12,000	10,500	11,000	17,000	26,100		
소계			19,856	14,341	12,338	10,813	11,298	17,387	26,695	462	
기타국가들			7,489	10,211	15,811	11,691	12,535	11,305	10,225	103,310	49,000
합계			185,935	190,662	207,500	234,895	295,291	316,709	281,492	305,301	418,000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표 2-2] 세계 아편 생산(추정)량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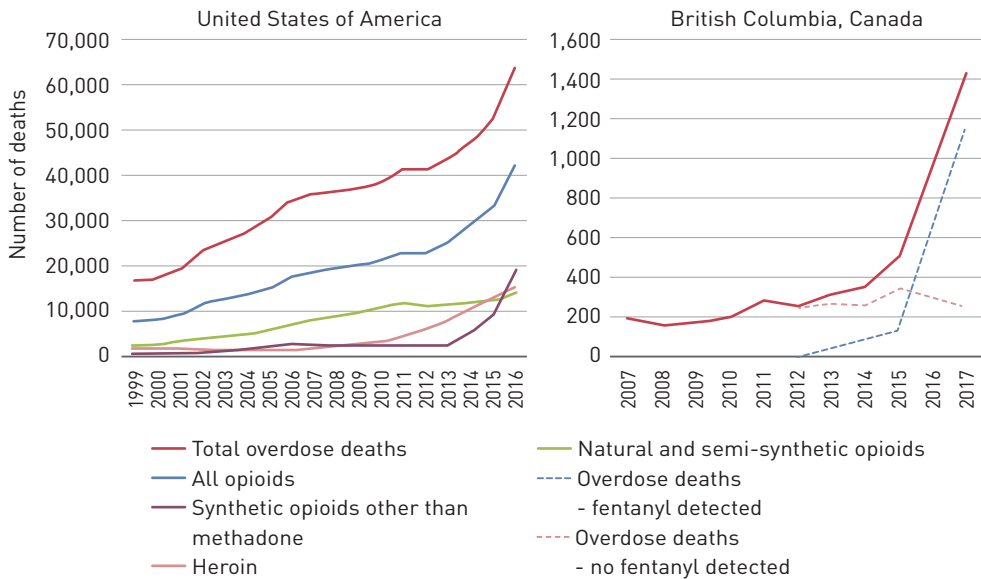
국가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남아시아											
황금의 초승달지대	아프가니스탄		4,000	3,600	5,800	3,700	5,500	6,400	3,300	4,800	9,000
	파키스탄		44	43	9	9	12	5	9	3	
소계			4,044	3,643	5,809	3,709	5,512	6,405	3,309	4,803	9,000
동남아시아											
황금의 삼각지대	라오스		11	18	25	41	23	92			
	미얀마		330	580	610	690	870	670	647		550
	태국		3	5	6	3	4				
소계			344	603	641	734	897	766	647		550
중남미											
콜롬비아			9	8	8	8	11	12	17	13	
멕시코			425	300	250	220	225	360	499		
소계			434	308	258	228	236	372	516	13	
기타국가들			131	176	275	160	165	189	299	1,567	950
합계			4,953	4,730	6,983	4,831	6,810	7,732	4,771	6,383	10,500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2. 소비(남용) 동향

- UNODC에 따르면, 2016년에 아편, 모르핀, 헤로인을 포함한 아편류(opiates)²⁾ 남용자 수는 1,940만 명이고, 이는 전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약 0.4%로 2015년 1,770만 명보다 약 10% 증가함

[그림 2-2] 미국과 캐나다(British Columbia 주)의 마약류 관련 사망 통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 미국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마약류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상 최대의 증가율을 보여 2016년 마약류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63,632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이 중 19,413명은 아편유사제(opioids)³⁾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이며, 헤로인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2015년 대비 19% 증가함

2) 아편유사제(opioids)의 일부로 아편, 모르핀, 헤로인 등 양귀비에서 추출된 다양한 제품을 말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7, vol.1 “EXECUTIVE SUMMARY” p33.]

3) 양귀비의 알칼로이드(질소를 포함한 염기성 유기화합물로 단일 물질의 명칭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광범위한 물질을 말함)를 부르는 일반적인 단어로,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를 말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vol.1, p29, “EXECUTIVE SUMMARY”]

-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는 2016년 마약류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펜타닐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2012년 전체 마약류 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의 4%에서 펜타닐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2016년에는 전체 마약류 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의 81%에서 펜타닐 성분이 검출됨
- 전 세계 아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 연간 아편 중독자 수는 전 세계 성인 인구(15세~64세)의 0.4%에 해당하는 약 2,750만 명 수준이며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지역이 50%, 유럽이 20%, 미주지역이 14%임
- 지난 10년 동안 북미 지역의 헤로인 및 펜타닐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던 중·서유럽 지역의 남용자 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급증함
- 이와 동시에 유럽지역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헤로인 및 모르핀과 관련된 사망이 급증하고 있음

3. 생산 동향

- 2017년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면적은 328,000ha로 전 세계 재배면적의 75%에 달하며 전년 재배면적인 201,000ha 보다 63% 증가하였고, 같은 해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86%인 9,000톤에 달함
- 2017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아편 10,500톤 중 9,100 ~ 9,400톤이 헤로인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고, 그 결과 700 ~ 1,500톤의 헤로인이 제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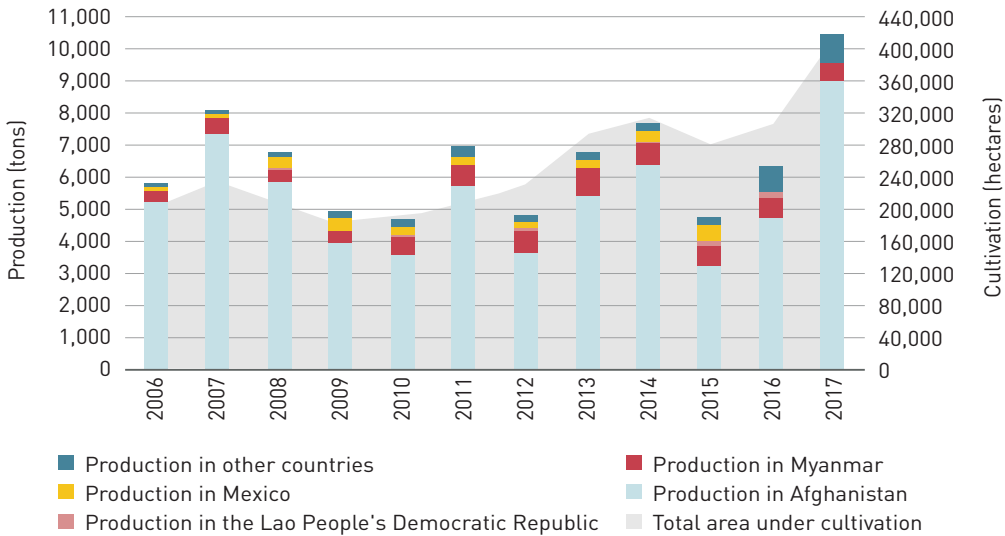
[표 2-3] 세계 아편·헤로인 생산량 (2010년~2017년)

(단위: 톤)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아편 생산량	4,730	6,983	4,831	6,810	7,723	4,770	6,376	10,500
헤로인으로 제조되지 않은 아편의 양	1,728	3,400	1,850	2,600	2,450	1,360	2,080	1,100~1,400
헤로인으로 제조된 아편의 양	3,002	3,583	2,981	4,210	5,273	3,411	4,296	9,100~9,400
전체 헤로인 제조량	383	467	377	555	542	327	448	700~1,500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그림 2-3] 아편 생산 및 양귀비 재배면적 통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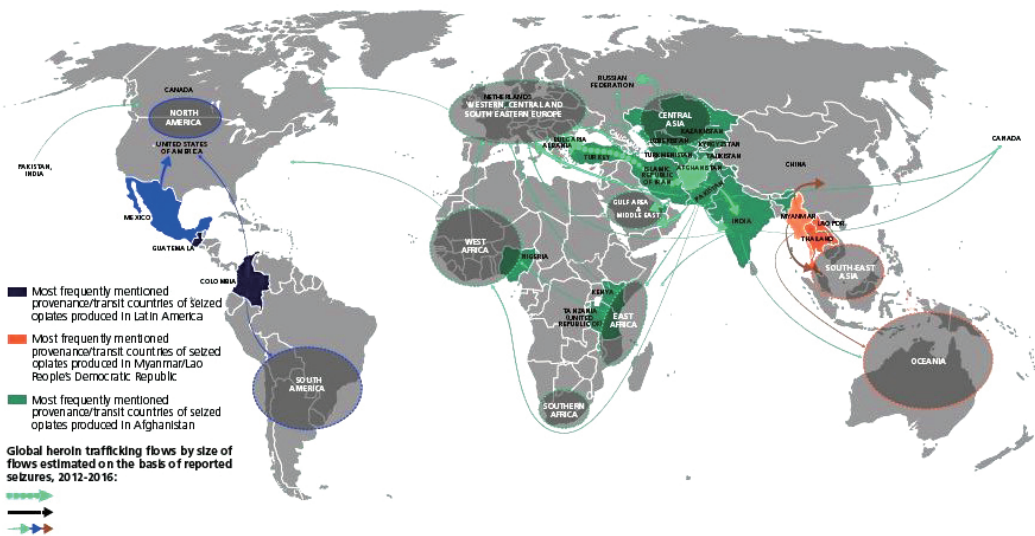
4. 밀매 동향

- 주요 아편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의 영향으로 2016년 전 세계 아편류 압수량의 76%가 중동 및 서남아시아와 그 인근 지역에서 압수되었고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7%, 유럽 지역에서 7%에 달하는 양이 압수됨
- 2016년 아시아 지역의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은 135톤으로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은 6%로 감소하였음
 - ※ 아시아의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 증가는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량이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 감소는 미얀마의 아편 생산량의 감소 및 지역 내 ATS 밀매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반면 유럽 지역의 2016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11톤으로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적은 양으로, 서부 및 중부지역의 압수량은 전년 대비 11%, 동남부 지역의 압수량은 전년 대비 31%가 감소하였고 특히 동유럽 지역의 압수량은 전년 대비 67%가 감소하였음
- 또한, 2016년 미국에서 압수된 헤로인과 모르핀의 양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22%가 감소함
 - ※ 미국의 헤로인과 모르핀의 압수량 감소는 펜타닐 등 아편유사체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임
- 아프가니스탄 산(産) 아편류의 밀수 경로는 이란과 터키를 경유하여 중·서유럽 지역으로 이동하는 ‘발칸 루트(Balkan Route)’, 남아시아, 걸프, 중동, 아프리카 및 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남부 루트(Southern Route)’,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해 러시아 연방으로 이동하는 ‘북부 루트(Northern Route)’가 있음
- 특히, 아편류는 주로 발칸 루트를 통하여 다양한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2016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압수량을 제외한 전 세계 헤로인 및 모르핀 총 압수량의 37%가

발칸 반도 지역에서 압수되었으며 특히 이란에서는 32톤의 헤로인과 모르핀이 압수되었고 터키에서는 5.6톤이 압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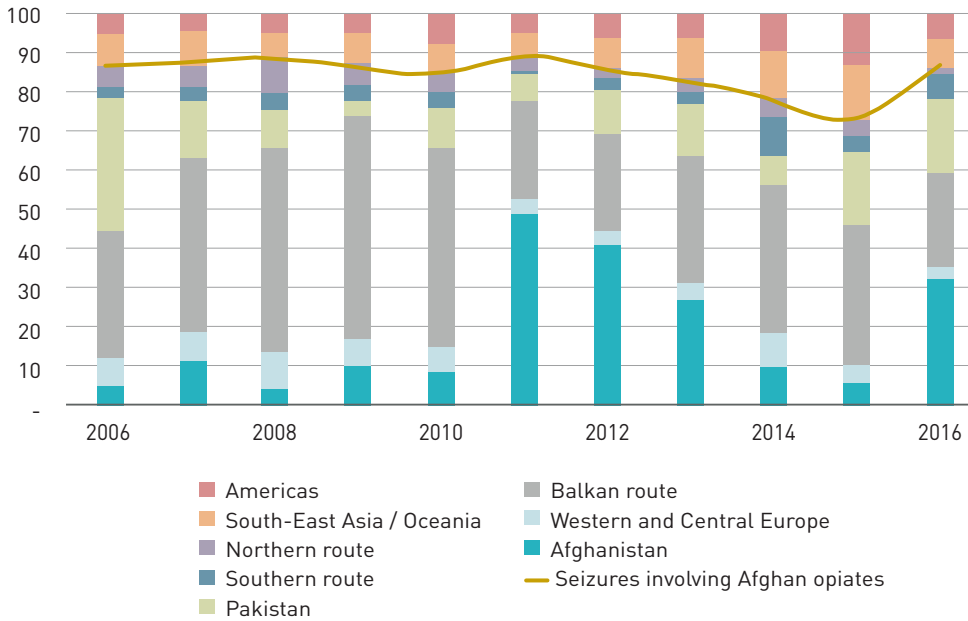
- 2016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아편 생산율은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미얀마는 태국과 중국,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밀수입되는 아편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오세아니아에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아편류 압수량의 98%가 동남아시아 산(産)임
- 2016년 미주 지역의 헤로인과 모르핀 밀매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편 유사체의 밀매는 증가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의 아편은 주로 멕시코로부터 밀수되고, 미국의 2015년 압수된 헤로인의 90%가 멕시코 산(産)임

[그림 2-4] 세계 헤로인 이동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그림 2-5] 2006년~2016년 주요 밀수경로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 비율 분포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표 2-4] 국내 헤로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

(단위: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검거인원	0	18	5	0	4	0	0	3	1	1
압수량(g)	0	1,914	81	0	3.5	0	0	4.54	0.03	3.73

- 1990년대 초반까지 헤로인 밀수의 경우,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었음
- 다만,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투약할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헤로인을 밀수입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나, 내국인 투약사범은 최근 10여 년 동안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음

주요 헤로인 밀수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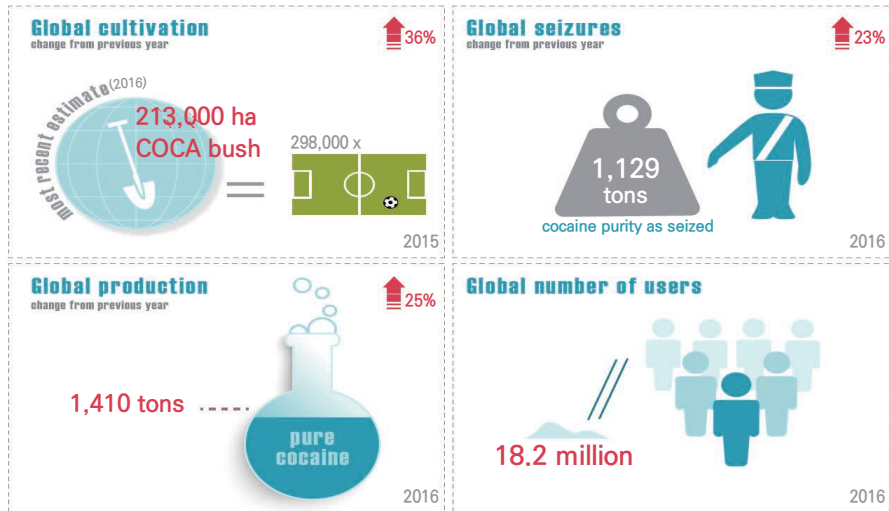
- 2006. 6.경 홍콩인이 헤로인 약 18.2g을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바지주머니에 은닉하고 홍콩 첵랍콕 공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2.경 대만인이 헤로인 약 370.27g을 콘돔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콘돔 4덩어리는 향문 안에, 콘돔 2덩어리는 바지 양쪽 주머니에 각각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7.경 대만인 3명이 헤로인 약 1.2kg을 콘돔 17개에 나누어 담고 각자의 향문 안에 5~6개씩 은닉하여 캄보디아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10.경 나이지리아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인도로부터 헤로인 334g을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8.경 미국인이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0.98g 및 해시시 3.57g을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1.경 베트남인 3명이 헤로인 7.7g을 콘돔에 넣어 입 속에 은닉한 채 베트남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의정부지검)
- 2015. 6.경 미국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0.65g을 밀수입 (부산지검)
- 2015. 11.경 미국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2.54g을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 2016. 12.경 미국인이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0.03g을 밀수입 (대전지검)
- 2017. 3.경 미국인이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캐나다로부터 헤로인 3.73g을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제2절 코카인⁴⁾

1. 전 세계 통계 개요

- 코카 재배량은 2000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까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전 세계 코카 면적은 213,000ha로 2013년 대비 76%가 급증함
- 2016년 전 세계 코카인 제조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410톤으로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콜롬비아에서 제조된 코카인의 양이 60% 이상을 차지함
- 2016년 전 세계 코카인 압수량은 역사상 최대치인 1,129톤으로, 이 중 90% 이상이 미주 지역에서 압수되었으며 그 중 60%가 남미 지역에서 압수되었음

[그림 2-6] 코카인 관련 통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4)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vol.3, "ANALYSIS OF DRUG MARKETS"

2. 소비(남용) 동향

- 2016년 전 세계 코카인 남용자 수는 1,8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코카인 남용자 수는 전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약 0.4%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 세계 코카인 남용자 수의 50% 이상이 북미에 거주하며, 25%가 유럽에 거주하고, 특히 중·서유럽의 코카인 남용자 수는 전 세계 코카인 남용자 수의 20%에 해당함
- 코카인이 가장 확산된 국가인 미국의 코카인 남용자 수는 성인인구(15~64세)의 약 2.4%이고, 캐나다는 성인인구(15~64세)의 1.5%, 호주는 성인인구(14세 이상)의 2.5%, 영국은 성인인구(16~59세)의 2.3%가 코카인 남용자 수입

3. 생산 동향

- 코카는 주로 안데스 산맥 주변 국가들로부터 재배되며 특히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됨
- 2016년 전 세계 코카 재배면적은 213,000ha로 전년 대비 36% 급증하였고, 특히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면적은 146,000ha로 2013년 대비 3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코카 재배면적의 68.5%에 달함
- 볼리비아와 페루는 대체작물 개발과 집중적인 코카 재배 제거 노력으로 볼리비아는 2010년부터, 페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코카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2016년 볼리비아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23,100ha, 페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43,900ha임
 - ※ 코카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코카 재배가 대체작물 재배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카 재배면적이 증가함
- 2016년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1,410톤으로 2015년 대비 25% 증가하였고, 이는

역사상 최대치이며, 특히 콜롬비아의 2016년 코카인 제조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866톤으로 크게 증가함

※ 코카인의 재배면적 증가와 코카인 제조기법의 향상에 따른 결과임

[표 2-5]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 (2007년~2016년)

(단위: 헥타르)

연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볼리비아	28,900	30,500	30,900	31,000	27,200	25,300	23,000	20,400	20,200	23,100
콜롬비아	99,000	81,000	73,000	62,000	64,000	48,000	48,000	69,000	96,000	146,000
페루	53,700	56,100	59,900	61,200	64,400	60,400	49,800	42,900	40,300	43,900
합계	181,600	167,600	163,800	154,200	155,600	133,700	120,800	132,300	156,500	213,000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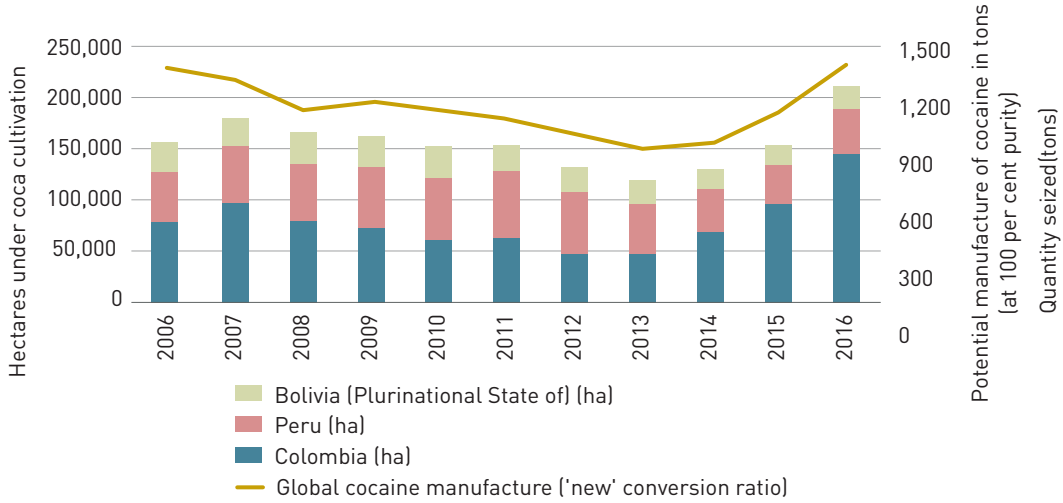
[표 2-6] 코카인 생산량 (2007년~2016년)

(단위: 톤)

연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볼리비아	104	113								
콜롬비아	683	471	488	424	384	333	290	442	646	866
페루	290	302								
합계 (舊 환산율)	1,077	886	920	862	815	738	662	746	937	1,198
합계 (新 환산율)	1,317	1,143	1,188	1,134	1,090	997	902	943	1,125	1,410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그림 2-7] 전 세계 코카인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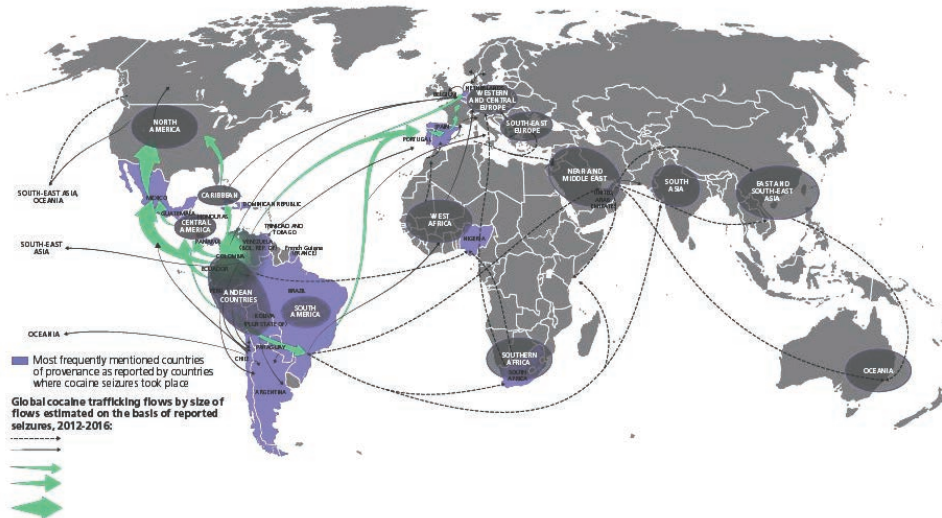
4. 밀매 동향

- 2016년 전 세계 코카인 압수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129톤으로 이는 역사상 최대치이며 그 중 압수량의 60%가 남미 지역에서 압수되었고 미국에서 18%가 압수되는 등 미주 지역에서 전 세계 코카인 압수량의 90%가 압수됨
- 코카인의 주요 밀수 경로는 안데스 산맥 주변 국가에서 북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특히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의 경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2016년 미국으로 반입되는 코카인 중 92%의 원산지가 콜롬비아 산(産)임
- 두 번째 주요 밀수 경로는 안데스 산맥 주변 국가에서 중·서유럽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으로 밀반입된 코카인의 20%가 콜롬비아에서 밀반입되었고, 16%가 브라질로부터 밀반입되었으며, 에콰도르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하여도 각 9%가 밀반입되었음
- 2016년에는 전통적으로 코카인이 많이 거래되는 미주·유럽 외의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이 급증하였는데, 아시아

지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은 전년 대비 세 배가 증가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은 두 배가 증가함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된 코카인은 주로 브라질로부터 밀수입되었으며, 주요 밀수 경로로는 아랍 에미리트 연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가는 경로가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아랍 에미리트 연방을 거쳐 이스라엘로 가는 경로가 있음
 -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2016년 코카인 압수량은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고, 압수량의 98%가 호주에서 압수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호주에서 압수된 코카인은 미국,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로부터 반입이 됨
- ※ 코카인이 주 소비국인 북미 지역에서 오세아니아로 밀수입되는 이유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도매가격이 북미 지역 등 타국가의 코카인 도매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 때문임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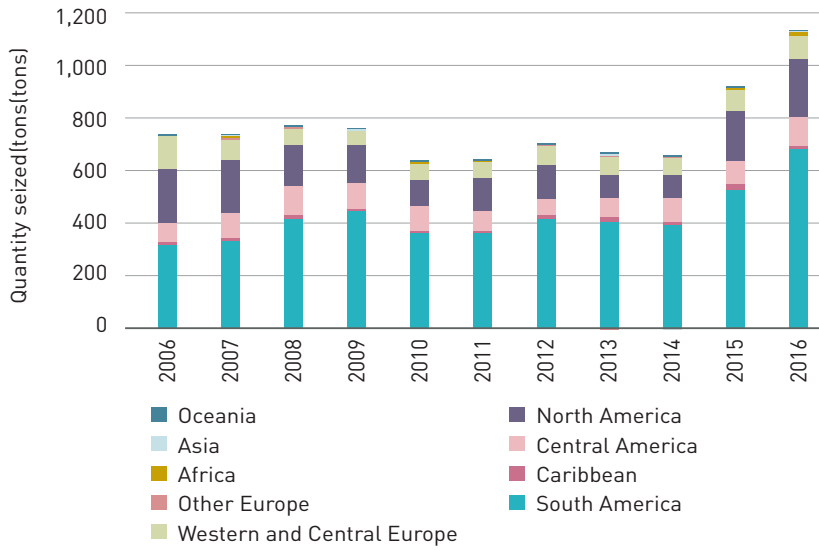
[그림 2-8] 세계 코카인 이동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5) 2016년 코카인 도매가격(1kg): 호주(137,000\$ ~ 222,000\$), 미국(4,000\$ ~ 50,000\$), 캐나다(41,000\$ ~ 59,000\$),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vol.3, "ANAYSIS OF DRUG MARKET"

[그림 2-9] 2006년~2016년 지역별 코카인 압수량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5. 국내 코카인 유통추세

[표 2-7] 국내 코카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검거인원	7	3	0	4	3	8	5	4	6	6
압수량(g)	8,869	298	0	2,153	63.62	1,215	11	10	10,943	142

- 1988. 10.경 서울중앙지검이 미국에서 서울시내 호텔에 투숙 중인 올림픽 관광객에게 발송한 코카인 10g을 적발(소위 ‘얼굴 없는 코카인 사건’)한 것을 필두로 1990. 2.경 부산동부지청이 코카인 150g을 밀매한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990. 9.경 서울중앙지검이 국제 코카인 밀수조직을 적발하여 코카인 976g을 압수하는 등 코카인 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짐
- 코카인은 내국인들의 소비 사례보다는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 등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적발되었음
- 2014년에는 우리 국민 3명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약 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15년에는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약 2.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이 적발되는 등 최근에는 유학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소량으로 코카인을 밀수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6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는 중간 경유지로 삼아, 최종목적지인 제3국(홍콩)으로 코카인 약 10kg을 밀수입 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 발생
- 2017년에는 우리 국민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한국으로 코카인을 운반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몸에 휴대하여 밀수입하는 사례가 발생

주요 코카인 밀수사건

- 2004. 4.~5.경 캐나다인이 홍콩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의 지시로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코카인 20kg을 호주, 일본 등으로 밀수출 (수원지검)
- 2004. 11.경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3g을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06. 3.경 네덜란드인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프랑스를 경유,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4kg을 밀수출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 (인천지검)
- 2007. 4.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약 3.2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8.경 나이지리아인이 브라질로부터 코카인 5.2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9.경 나이지리아인이 브라질로부터 코카인 3.6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9.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58.34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3.경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을 출발, 파나마를 경유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에 코카인 2.1kg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적발 (부산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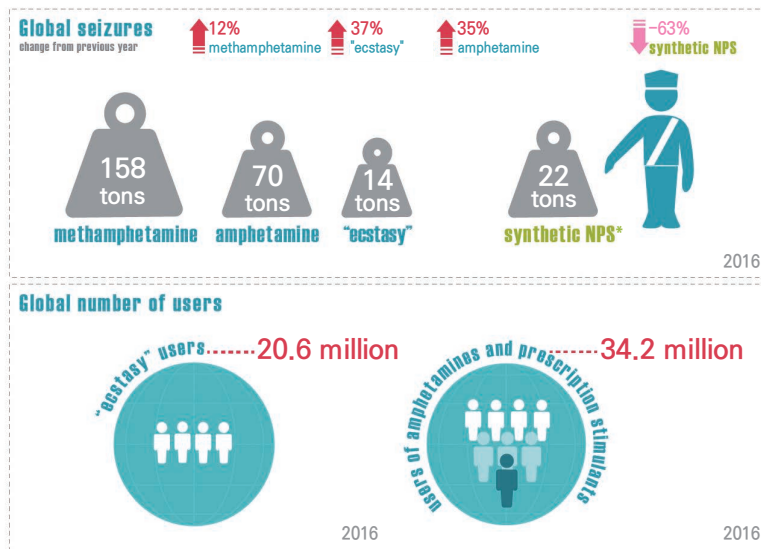
- ① 2013. 1.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로부터 코카인 약 9.72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성남지청), ② 2013. 3.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2.13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대전지검), ③ 2013. 11.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18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3. 11.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3.3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부천시청)
- ① 2014. 1.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4. 2.경 미국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약 2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4. 2.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약 7.8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부천시청)
- ① 2015. 10.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2.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② 2015. 10.경 캐나다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0.55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5. 11.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2.0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④ 2015. 12.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로부터 코카인 0.5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① 2016. 4.경 독일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0.03g을 휴대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6. 9.경 미국인이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 6,400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6. 9.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6.96g을 휴대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6. 10.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3.95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⑤ 2016. 10.경 캐나다인이 콜롬비아로부터 코카인 4,478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① 2017. 4.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3.01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북부지검), ② 2017. 6.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37.46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동부지검), ③ 2017. 12.경 우리 국민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60g을 휴대하여 밀수입 (창원지검)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 향정물질[NPS]⁶⁾

1. 전 세계 통계 개요

- 2016년 전 세계 ATS 압수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7톤이며, 이 중 메트 암페타민의 압수량이 158톤이고 암페타민이 70톤, 엑스터시는 14톤임
- 2016년 72개의 새로운 NPS가 보고되어, 2009년~2017년 사이 1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보고된 NPS의 종류는 총 803개에 달함
- 2012년부터 압수된 모든 NPS 중에서 합성 대마(Synthetic cannabinoids)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합성캐치논(Synthetic cathinones)이 그 뒤를 따름

[그림 2-10] ATS 및 NPS 관련 통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6)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vol.3, "ANAYSIS OF DRUG MARKET"

2. 소비(남용) 동향

- 전 세계의 ATS 시장은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많은 지역에서 메트암페타민의 남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미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마약류임
- 북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의 남용 및 밀매가 증가하고 있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결정형 메트암페타민과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이 함께 남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의 남용은 감소하고 결정형 메트암페타민 남용이 대다수를 차지함
※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은 ‘크리스탈 메스(Crystal Meth)’, 또는 아이스(Ice)라고 불리며 순도가 높은 반면,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은 ‘야바(Yaba)’로 불리며, 순도가 낮고 다양한 외형과 색을 띠
-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거대한 엑스터시 시장이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엑스터시 시장의 중심지인 중·서유럽에서도 엑스터시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엑스터시 남용자 수는 약 2,060만 명이고, 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지역에서 흔하게 남용되고 있음
- NPS는 대마, 코카인, 헤로인, LSD, MDMA, 메트암페타민 같은 규제대상 물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남용물질로, 2017년 말까지 보고된 NPS의 약리학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이 물질들 가운데 대다수는 합성대마, 각성제, 전형적인 환각제로 밝혀짐
- NPS의 남용에 관한 자료는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마 연초 등과 혼합하여 흡연을 하는 방식이 주 남용 방법이었으나, 3년 전부터 알약 또는 액체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남용 방법이 증가하고 있음
- 영국과 웨일스의 2015년과 2016년 사이 NPS 남용률은 성인 인구(16세 ~ 59세)의 0.7%였으나, 2016년과 2017년 사이 0.4%로 감소하였고, 아일랜드의 2010년과 2011년 사이 NPS 남용률은 성인 인구(15세 ~ 64세)의 3.5%였으나, 2014년과

2015년 사이에는 0.8%로 감소하였음

- 또한 호주의 합성대마 남용률 역시 2013년에는 성인 인구(14세 이상)의 1.2%였으나, 2016년에는 성인 인구(14세 이상)의 0.3%로 감소하였음
- 최근, 미국에서 중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합성대마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12학년 학생들의 합성 대마 남용률은 2012년 11.3%에서 2017년 3.7%로 감소함
- 주사(주사기)를 사용하여 NPS를 투약하는 마약류 투약자들은 중독의 위험이 더 높고 주사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재사용하기 때문에 질병 감염의 위험이 더 높지만,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로마,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주사를 사용하여 NPS를 투약하는 마약류 투약자들이 보고되었음

3. 생산 동향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ATS는 합성마약류로 사실상 어느 곳에서나 제조가 가능하며, 헤로인, 코카인처럼 식물에서 특정 물질을 추출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식물을 재배할 필요가 없음
- 소량의 ATS는 간단한 제조법(Recipe)을 이용해 소위 ‘키친 랩(Kitchen Lab)’이라 불리는 작은(소규모) 밀조시설에서 만들 수 있으나, 대량의 ATS는 복잡한 밀조장비를 갖춘 시설에서 원료물질과 합성공정이 필요함
- ATS 시장에 대한 분석은 한정된 제조 관련 정보로 인해 전 세계 ATS 제조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같이 주요 시장의 데이터도 제한적이며, 게다가 전통적인 ATS의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하는 NPS의 등장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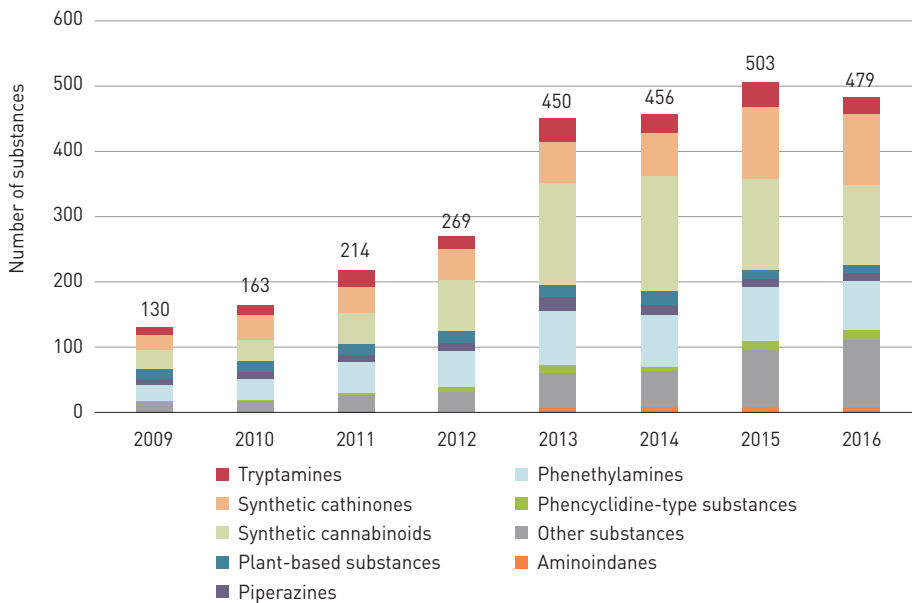
- EMCDDA⁷⁾에 따르면 엑스터시는 주로 중·서유럽 지역에서 제조되고 특히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대량의 불법 MDMA 제조시설이 적발되고 있으며, 미주·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중·서유럽에서 밀반입된 엑스터시에 대하여 빈번히 보고되고 있음
- 최근 엑스터시는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고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1)고용량 MDMA의 정제형 엑스터시, 2)고순도 MDMA가 함유된 가루형 엑스터시, 3)MDMA 성분이 없거나 거의 없는 정제형 엑스터시로 분류됨
- 다양한 종류의 엑스터시가 출현한 것은 MDMA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다른 물질이 MDMA를 대체했기 때문이며, 2013년 압수된 정제형 엑스터시에는 MDMA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거의 없고 NPS와 같은 비(非)통제(규제대상) 물질이 함유됨
- 유럽 지역에서는 주로 정제형 형태의 엑스터시를 사용하지만, 최근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가루(분말) 또는 결정형의 MDMA가 출현하고 있음

7) 유럽마약감시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Lisbon

나. 신종 향정물질(NPS)

- UNODC가 NPS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1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총 803 종류의 NPS가 보고되었는데, 2015년까지 매년 보고되는 NPS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한 479개(2015년 503개種)의 NPS가 보고되었고 이 중 새로운 NPS는 72개(2015년 137개)임
- 2017년 말까지 보고된 모든 NPS 중 합성대마 관련 물질이 251개가 보고되어 가장 많았고, 합성향정물질은 155개, 합성캐치논은 148개가 보고됨
- 반면, NPS는 사라지기도 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고된 200종류의 NPS가 2015년과 2016년에 보고되지 않아 마약 시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에 보고된 130개의 NPS 중 70개만이 현재까지 매년 보고되고 있음

[그림 2-11] 2009년~2016년 보고된 NPS의 수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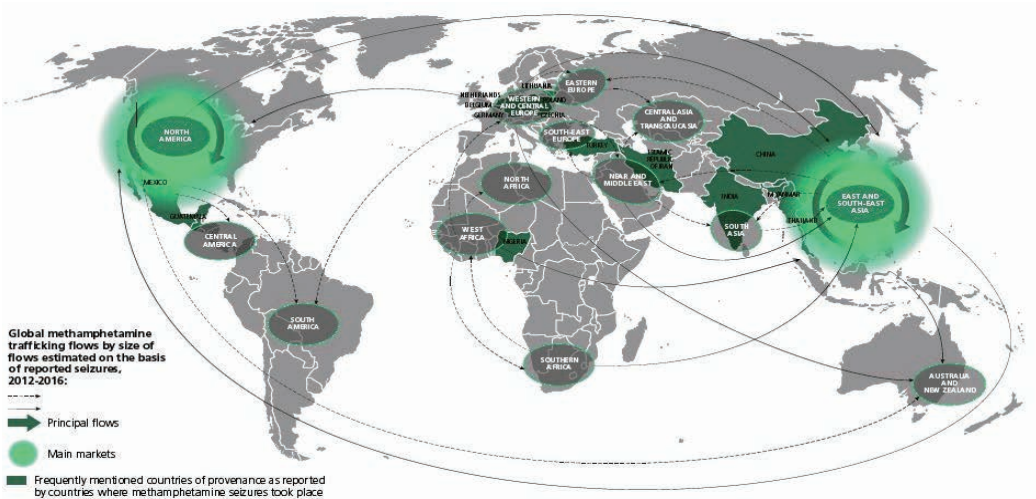
4. 밀매 동향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1)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전 세계 메트암페타민의 압수량은 2013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6년 전 세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158톤으로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임
 - ※ 전 세계 메트암페타민의 압수량이 증가한 이유로는, 메트암페타민 시장이 확장되는 것도 원인이지만, 각 국가의 사법당국의 단속역량이 개선된 것도 주요 원인임
- 2016년 북미에서 87톤의 메트암페타민이 압수되었고,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는 61톤이 압수되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의 압수량은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임
- 특히 미국에서의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2013년에 30톤에서 2016년에 52톤으로 급증하여, 헤로인 다음으로 많이 밀매 및 남용되는 마약임
- 북미,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은 메트암페타민 생산 및 밀매의 주요 지역이며 이 지역들은 각 지역 내에서의 밀매 뿐 아니라, 북미 지역에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북미 지역으로의 밀반입 역시 활발함
- 북미,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서유럽 지역, 인도, 이란, 나이지리아 그리고 터키 또한 전 세계에 밀매되는 메트암페타민의 출발지이며, 중·서·남아프리카는 메트암페타민 밀매의 경유지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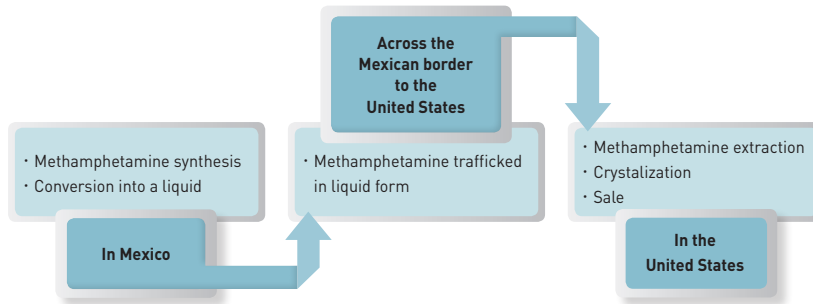
[그림 2-12] 세계 메트암페타민 이동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 또한 북미에서의 압수량 역시 2013년에 30톤에서 2016년에 52톤으로 급증하여 헤로인 다음으로 많이 남용되는 마약임
- 최근까지 대부분의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고가 되었으며, 2013년까지 위 지역에서의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의 압수량 수치는 안정화를 보였지만, 최근 압수량이 급증하여 2016년에는 2013년의 세배에 달하는 30톤의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이 압수됨
- 북미 지역에서는 최근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 분말형 또는 액체형 메트암페타민이 밀매되는데 특히 2013년에는 멕시코에서 3톤의 액체형 메트암페타민이 압수됨
 ※ 이는 선적이 용이할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멕시코 마약밀매조직의 전략으로 보임
- 이런 분말형 또는 액체형 메트암페타민은 미국 내 정제시설에서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으로 정제되는데, 이런 정제시설은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멕시코와 인접한 남서부 주에 위치하고 있으나 노스캐롤라이나 주나 조지아 주와 같이 동부 지역에서도 단속 되기도 함

[그림 2-13]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메트암페타민 밀매 방법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2) 암페타민(Amphetamine)

- 수년간 암페타민은 중동과 중·서유럽 지역에서 널리 밀매되었지만, 최근 북미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암페타민 압수량이 증가하는 등 암페타민 시장이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음

※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암페타민 압수량이 증가하는 원인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미 지역으로의 암페타민 대량 밀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미 지역에서의 암페타민 압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밀매량의 증가와 북미 지역 자체 내에서도 암페타민 제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중동에서의 암페타민 시장 역시 확대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르단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암페타민 남용률이 증가하였음
- 2016년 중동 및 동아시아·서남아시아에서의 암페타민 압수량은 46톤으로 전년(20톤)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39%인 18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압수되었고 요르단에서 14톤,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서 6톤, 파키스탄에서 4톤이 압수되었음
- 최근 북아프리카에서는 대량의 암페타민이 압수되었는데 특히 이집트에서 2015년에 2톤, 2016년에 6톤의 암페타민이 압수되었으며, 수단에서 2016년에 0.5톤의 암페타민이 압수되었음

- 2016년에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전역에서 암페타민의 압수가 보고되었는데, 특히 미국에서 압수된 암페타민은 전 세계 암페타민 압수량의 6%를 차지하며, 중미 및 중·서유럽,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뉴질랜드 등 세계 다양한 지역과 암페타민이 거래되고 있음
- 미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암페타민 제조공장을 다수 적발하였는데, 2015년에는 42개의 제조공장을 적발하였고, 2014년에는 62개의 제조공장을 적발하였음
※ 2015년에 적발된 42개의 제조공장 중 1개가 대규모 공장이었으며, 2014년에 적발된 62개의 제조공장 중 10개가 대규모 공장이었음

(3) 엑스터시(Ecsta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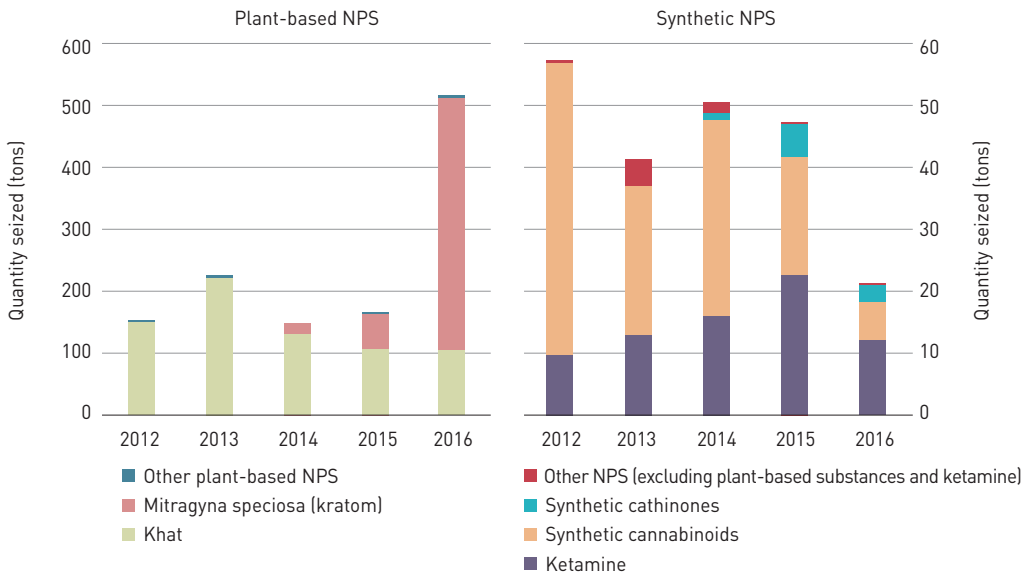
- 2016년에 전 세계에서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14톤의 엑스터시를 압수하였으며, 엑스터시 시장의 중심지인 중·서유럽 지역에서는 수년 간 많은 양의 엑스터시가 압수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엑스터시 제조와 밀매의 핵심 국가임
- 2016년 오세아니아에서는 엑스터시 남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으며, 호주는 2016년 5톤의 엑스터시를 압수하여 압수량이 전년(2015년 700kg) 대비 7배 이상 급증하였고, 뉴질랜드에서는 2010년 이후 매년 50kg 미만의 엑스터시가 압수됨
- 오세아니아에서는 해외로부터 밀반입되는 엑스터시 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엑스터시의 비율도 상당한데, 호주에서는 2014년에서 2015년까지 18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17개의 엑스터시 제조공장을 단속하였고, 뉴질랜드에서는 2013년 2개의 제조공장을 단속하였음

나. 신종 향정물질(NPS)

- NPS 압수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의 물질들이 국제적으로 통제되지 않아 압수되지 않거나 UNODC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임

- 2012년 이후 NPS 중 합성대마가 전 세계 NPS 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2014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미국에서 5톤, 러시아에서 0.7톤, 터키에서 0.6톤의 합성대마를 압수함
- 2016년에는 합성캐치논의 압수를 보고한 국가가 증가하였고 전 세계 NPS 압수량에서 합성캐치논의 압수량 비율이 30%에 다다랐으며(식물 기반 NPS 제외), 특히 러시아에서 2톤, 홍콩에서 0.2톤, 벨기에에서 0.1톤의 합성캐치논을 압수함
-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던 크라톱⁸⁾이 최근 몇 년새 북미 및 유럽 지역으로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1개 국가에서 크라톱의 압수를 보고함

[그림 2-14]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 세계 식물 기반 NPS 압수량 및 합성 NPS 압수량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8) 크라톱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크라톱 나무(Kratom 또는 *Mitragyna speciosa*)의 잎을 지칭하며 19세기부터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금단현상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현재는 마약류로 분류됨

5. 국내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취급 추세

가. 메트암페타민 밀조 추세

-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주요 메트암페타민 밀조국가였지만 1990년대 들어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조조직이 거의 와해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산 메트암페타민이 밀수입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서 메트암페타민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제조법이 인터넷으로 유포됨에 따라 소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조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① 2010년 화학박사가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② 2012년에는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③ 2013년에는 호주인이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일반인이 총 17회에 걸쳐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④ 2015년에는 조직폭력배가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⑤ 2016년에는 일반인이 부친 운영의 공장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⑥ 2017년에는 명문대 대학원생 등이 대학교 연구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조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2010년 이래 총 20건)

나. 향정사범 추세(메트암페타민 등 ATS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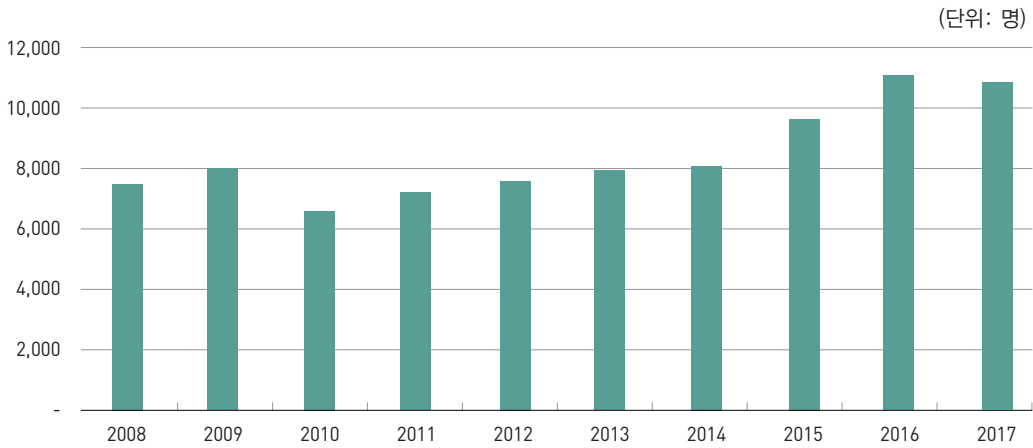
[표 2-8]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 추세

(단위: 명)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속인원	7,457	7,965	6,771	7,226	7,631	7,902	8,121	9,624	11,396	10,921
증감률(%)	-12.5	6.8	-15.0	6.7	5.6	3.6	2.8	18.5	18.4	-4.2

- 향정사범은 2017년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77.3%를 점유, 메트암페타민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음

[그림 2-15] 행정사범 추세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사건

- 2008. 5. 중국인이 중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부산지검)
- 2008. 10.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수원지검)
- 2008. 12.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카타르로부터 필로폰 3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12.경 일본인이 터키로부터 필로폰 약 856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12.경 일본인이 터키로부터 필로폰 1kg과 1.7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1.경 대만인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2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2.경 일본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액자 2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3.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운동화 두 켤레 밑창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6.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3.경 중국인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987.9g을 책자 안에 은닉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8.경 루마니아인이 가나로부터 필로폰 2kg을 여행용 가방 옆면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11.경 싱가포르인 3명이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영양갱과 비누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말레이시아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1. 2.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김해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1. 3.경 루마니아인이 아프리카 말리로부터 필로폰 1.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4.경 우리 국민이 아프리카 말리로부터 필로폰 3.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6.경 미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 2.6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9.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3.경 우리 국민이 필리핀으로부터 필로폰 1.4kg을 골프백 밑 부분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7.경 우리 국민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1kg을 캐리어백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2. 8.경 영국인이 피지로부터 필로폰 2.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10.경 우리 국민 6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7.4kg을 화물선에 은닉하여 포항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2. 11.경 독일인이 케냐로부터 필로폰 1.8kg을 배낭 속에 은닉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3. 1.경 우리 국민 3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2.2kg을 신발 6켤레에 은닉하여 청주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3. 3.경 호주인이 필로폰 2kg을 허벅지 부위에 반창고로 붙여 은닉한 후 인천 국제공항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3.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필로폰 1.3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성남지청)
- 2013. 4.경 영국인이 아프리카 말리로부터 필로폰 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남태평양 피지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5.경 일본인 2명이 마카오로부터 필로폰 6.2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8.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974g을 기계부품 안에 은닉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3. 10.경 독일인이 프랑스로부터 필로폰 3kg을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남태평양 피지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12.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5.7kg을 대형 커피머신 2대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2.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4.05kg을 아이스박스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3.경 우리 국민 3명이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15.1kg을 라벨링 머신기계 내부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전주지검)
- 2014. 4.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4.5kg을 핸드백 9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6.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6.1kg을 배낭 등에 은닉하여 거제시 고현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14. 7.경 일본인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6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4. 10.경 우리 국민 4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3.7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1.경 대만인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복대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3.경 말레이시아인 2명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4.1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4.경 우리 국민 3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6kg과 발기부전치료제 약 70만정을 컨테이너 안에 은닉하여 평택항으로 밀수입 (평택지청)
- 2015. 8.경 우리 국민 2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8kg을 선박 조리장실에 은닉하여 평택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5. 10.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805g을 화물로 가장하여 인천항으로 선박 배송 후 인천 부평구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15. 11.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대구지검)
- 2015. 12.경 미성년자인 우리 국민 2명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496g을 복대에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6. 1.경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1,041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6. 3.경 캄보디아인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486.1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수원지검)
- 2016. 3.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606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6. 4.경 인도인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735.04g을 백팩 등받이 부분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6. 6.경 탈북자 출신 등 3명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507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서울북부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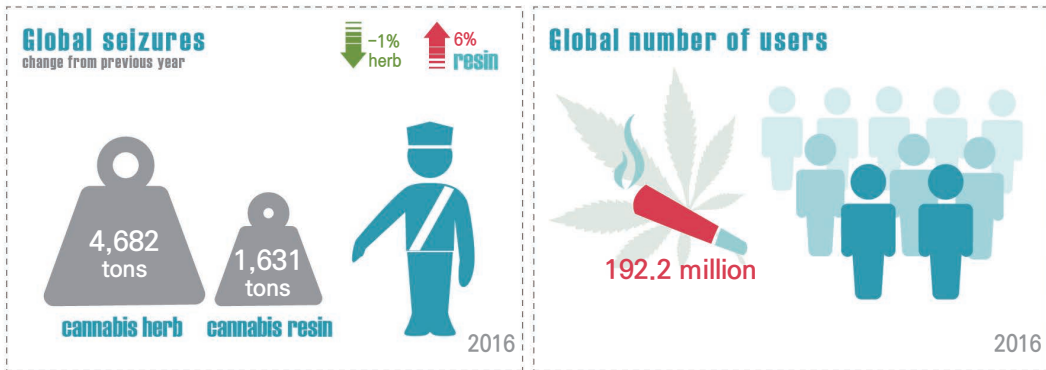
- 2016. 6.경 우리 국민과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필로폰 686.6g을 안마의자 속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16. 10.경 의정부 주둔 미군 2명이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4,122g을 밀수입 (의정부지검)
- 2016. 11.경 「말레이시아인 2명 및 필리핀인 1명(국제마약조직원)」과 「대만인 2명 (국제마약 유통책)」이 대만으로부터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2kg을 밀수입 (인천지검)
- 2016. 11.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5,044.46g을 밀수입 (울산지검)
- 2016. 12.경 평택 주둔 미군 2명이 미군사우편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4.1kg을 밀수입 (평택지청)
- 2017. 4.경 대만인이 대만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인천지검)
- 2017. 5.경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982.52g을 여행가방 하단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2017. 8.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필리핀으로부터 필로폰 997g을 백팩 등반이 부분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2017. 9.경 「대만인 폭력조직원」과 「재일교포 일본 야쿠자」 등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6kg(실제 8,639g 압수)을 화물선을 통해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제4절 대마⁹⁾

1. 전 세계 통계 개요

- 대마는 가장 널리 재배되는 마약류로 2010년부터 2016년 간 전 세계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145개 국가에서 대마 재배가 보고됨
- 2016년 전 세계 인구의 3.9%인 1억 9,220만 명이 대마를 경험해 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6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임
- 2016년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은 4,682톤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지만, 대마수지의 압수량은 1,631톤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음

[그림 2-16] 대마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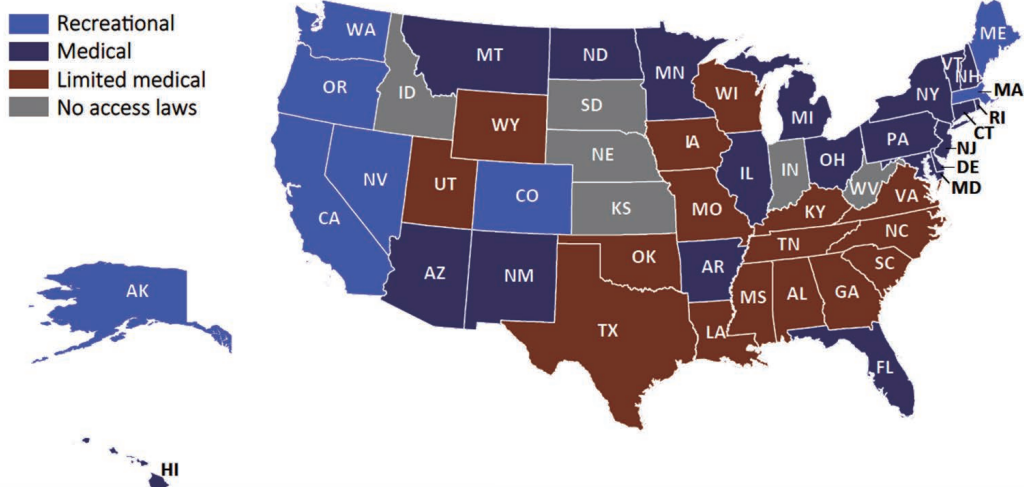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 미국 내 대마는 연방차원에서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의 Schedule 1로 금지되어 있으나, 대부분 주에서는 관할구역 내 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캘리포니아, 메인, 매사추세츠, 네바다 주(州)에서 비(非) 의료용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하여 기존의 콜로라도, 워싱턴, 알래스카,

9)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vol.3, "ANAYSIS OF DRUG MARKET"

오레곤 주(州) 등 4개 지역과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 C.)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에서 비의료용 목적 대마의 생산, 유통, 판매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대마사용이 합법화되었음

[그림 2-17] 미국 대마 사용 합법화 현황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2. 소비(남용) 동향

- 대마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마약류이고, 2016년 전 세계의 대마 남용자 수는 1억 9,220만 명으로 전년(1억 8,300만 명)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UNODC에 따르면, 미주 지역에서의 대마 남용자 수는 2006년 성인인구의 6.9%인 4,050만 명에서 2016년 미주 지역 성인인구의 8%인 5,290만 명으로 증가함
 - ※ 특히 미국에서 대마 남용자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부 주에서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대마초 사용에 대한 위험 인식이 감소하기 때문임

- 오세아니아 지역인 호주에서의 1998년 성인 인구의 약 18%가 대마초를 남용한다고 보고되었지만, 약 10년 후 이 수치는 대략 10%로 감소하였고, 현재까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 유럽 지역에서의 대마 남용률은 성인인구의 6~7%이며 2015년 기준 유럽 지역에서 대마초 남용률이 높은 국가로는 프랑스(성인 인구의 11.1%), 스페인(성인 인구의 9.5%), 체코(성인 인구의 9.4%)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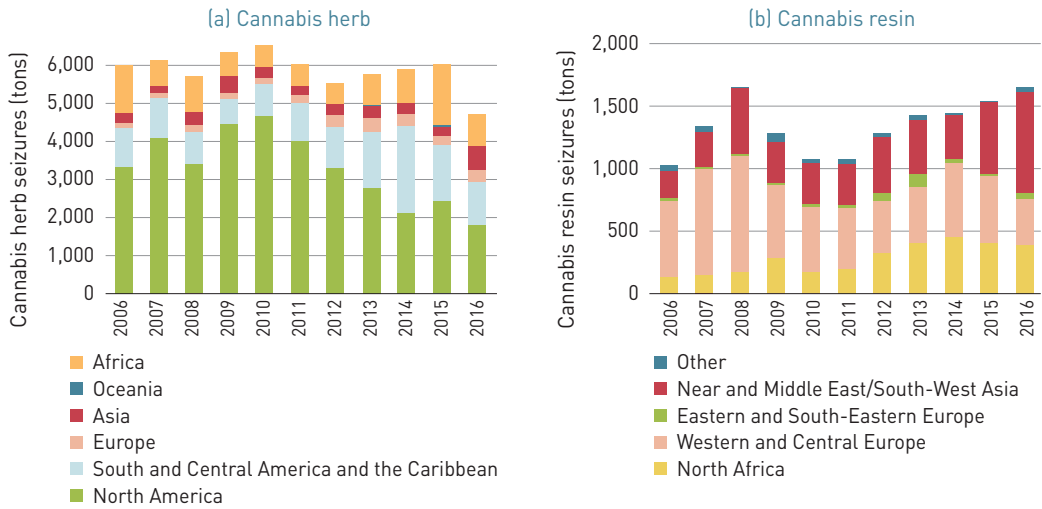
3. 생산 동향

- 대마 재배는 전 세계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145개 국가에서 보고되었지만, 체계적인 측정방식의 부재로 대마 재배 및 생산의 범위와 동향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2016년 북미 지역 대마의 최대 공급국은 멕시코이고 남미 지역 최대 생산국은 콜롬비아와 파라과이이며, 미국 내 대마초 최대 공급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州)임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의 대마 최대 공급국 또는 경유국은 가나이고 나이지리아와 모잠비크 그리고 에스와티니가 그 뒤를 따르며, 같은 시기 아시아 지역의 대마 최대 공급국 또는 경유국은 인도이며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그 뒤를 따름
- 유럽 지역 모든 국가에서 대마가 생산되며 그 중 주요 공급국은 네덜란드와 알바니아이며, 최근 몇 년간 대마 재배지역을 가장 많이 제거한 지역 역시 네덜란드와 알바니아임
 - ※ 특히 알바니아에서는 5,205곳의 장소에서 2,536,288 그루의 대마초가 제거됨

4. 밀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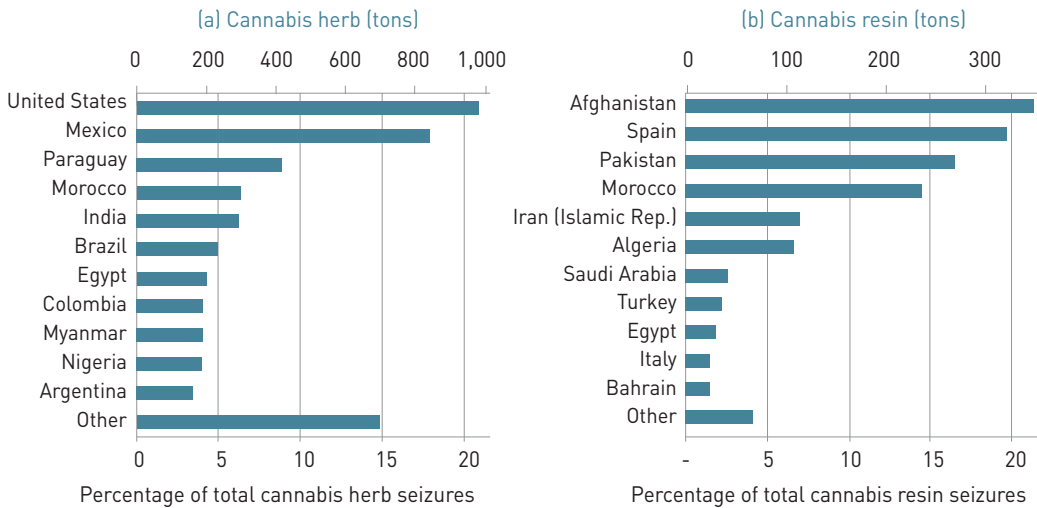
- 2016년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은 4,682톤으로 전년 대비 22%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0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임
 - ※ 이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압수량이 51% 감소하고, 미주 지역의 압수량이 24%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임
- 반면 2016년 전 세계 대마 수지 압수량은 1,631톤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여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임
 - ※ 이는 중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압수량이 41%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임
- 2016년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 중 3분의 2가 미주 지역에서 압수되었고,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의 39%가 북미 지역에서 압수되었으며, 남미·중미 그리고 카리브 해 연안 지역에서 23%가 압수되었음
- 또한 2016년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의 17%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14%가 아시아 지역, 6%가 유럽 지역에서, 0.2%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압수되었음
- 2016년 전 세계 대마 수지 압수량의 50%가 중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23%는 북아프리카에서, 23%는 중·서유럽에서 압수되었음
- 대마초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밀매가 생산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대마수지는 대부분이 모로코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어 중동 및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밀반입됨

[그림 2-18] 2006년~2016년 지역별·국가별 대마초 및 대마수지 압수량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그림 2-19] 2006년~2016년 국가별 대마초 및 대마수지 압수량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8

5. 국내 대마 관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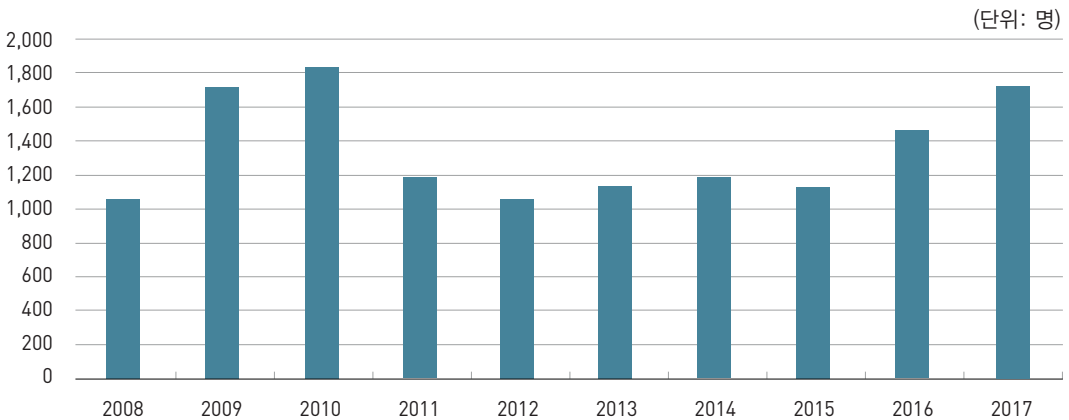
[표 2-9] 연도별 대마사범 단속 추세

(단위: 명)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속인원	1,045	1,712	1,837	1,189	1,042	1,177	1,187	1,139	1,435	1,727
증감율(%)	-10.7	63.8	7.3	-35.3	-12.4	13.0	0.8	-4.0	26.0	20.3

- 1996년에서 2009년 사이 대마 대량 밀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었는 바, 주요 사례로는 ① 2003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2회 대마 7kg, 8kg 등 밀수입, ② 2004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대마 3.5kg 밀수입, ③ 2006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대마 5kg 밀수입, ④ 2009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이 백인 여성을 지게꾼으로 이용하여 대마 4.3kg 밀수입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여성이 대마 6kg 밀수입한 사례 등이 있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대량 밀수 보다는 대체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사용 목적의 소규모 대마 밀수사범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

[그림 2-20] 대마사범 추세



주요 대마 밀수사건

- 2007. 2.경 우리 국민이 태국 방콕으로부터 대마 200g을 비닐랩에 넣고 압축한 뒤 팬티 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포항지청)
- 2008. 1.경 일본인이 태국 방콕으로부터 대마 농축액인 해시시¹⁰⁾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신 후 몸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3.경 러시아인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부터 해시시오일¹¹⁾ 약 86.65g을 화장품통 안에 은닉하여 속초항으로 밀수입 (속초지청)
- 2008.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1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7.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약 114.04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제주지검)
- 2009. 1.경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부터 대마 948g 및 대마수지 12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각5.1kg, 5.1kg을 나무조각품 2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6.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¹²⁾ 60개(약 1,497g)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창원지검)

10) 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8~10배 강함

11) Hashish Oil은 해시시를 반복 증류하여 추출되는 것으로 그 효능이 해시시 보다 2~3배 정도 강함

12) weed cookie는 대마성분인 칸나비노이드가 함유된 대마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쿠키로 만든 것임

- 2009. 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약 4.3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09. 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약 6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10.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가 함유된 대마쿠키 802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1.경 캐나다인이 캐나다로부터 대마강정 147.9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1.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 200.83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0. 2.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 171.5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8.경 캐나다인이 캐나다로부터 대마 약 92.5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몸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2. 7.경과 10.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505.65g을 미군사우편으로 밀수입 (수원지검)
- 2012. 8.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 853.09g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입 (진주지청)
- 2012. 9.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944.57g을 미군사우편으로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2013. 5.경 러시아인이 러시아로부터 대마 946g 및 해시시 55g을 선실 내에 은닉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2013. 7.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약 837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4. 10.경 네덜란드인이 네덜란드로부터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의정부지검)
- 2014. 10.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445.41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2015. 3.경 우리 국민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대마 약 35.02g, MDMA 3.39g, 사일로신 20.47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2015. 4.경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대마 약 4.5g을 팬티 속에 은닉하여 대구 공항으로 밀수입 (대구지검)
- 2015. 6.경 부산세관이 부산항에 정박한 캐나다발 대만행 선박(선박국적은 파나마)을 수색하여 향신료로 위장한 대마 약 9kg을 적발 (부산지검)
- 2015. 12.경 이집트인이 이집트로부터 대마 16.37g 및 대마수지 23.21g을 국제특송 화물로 밀수입 (포항지청)
- 2016. 2.경 우리 국민 2명이 캐나다로부터 대마 863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 2016. 3.경 우리 국민 2명이 캐나다로부터 대마 438.5g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17. 4.경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277.61g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입 (서울북부지검)
- 2017. 4.~9.경 우리 국민 2명이 독일, 영국, 캐나다로부터 대마 2,135.58g을 국제특송화물 등으로 밀수입 (서울동부지검)
- 2017. 5.경 일본인이 영국으로부터 대마 199.67g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입 (대구서부지청)
- 2017. 5.경 우리 국민 5명이 스페인으로부터 대마 511.39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평택지청)
- 2017. 7.경 우리 국민 5명이 태국으로부터 대마 151.91g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2017. 7.경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대마 1,028g을 국제소포우편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17. 10.경 우리 국민이 베트남으로부터 대마 1,277g을 휴대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17. 10.경 우리 국민이 캐나다로부터 대마 450g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